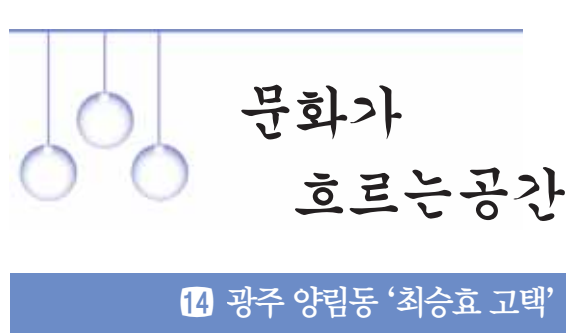


시간을 포개놓은 집... 지친 그대를 위한 '쉼'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최승효 가옥의 모습. 3000평 규모의 고택에는 아름다운 산책길도 마련돼 있다.

95년 된 3천평 고택 시민에 개방...자이당에 고서화·미술품 전시
편백나무 길·무등산 전망 압권...아들 미술가 최인준씨 15년 가꿔



얽힌 지나쳐 버리기 쉬운 막다른 골목길, 고풍스런 한옥문을 지나자 저절로 탄성이 터졌다. 푸른 잔디밭과 잘 다듬어진 나무들, 그리고 고풍스러운 한옥 한 채. 방방마다 걸린 작품들과 집안 곳곳에 마련된 산책길. 뒤안의 배롱나무 정원, 그 위쪽의 작은 갤러리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골목길. 광주의 숨겨진 속살, 보물같은 공간이 시민들에게 오픈됐다. 광주시 민속문화재 제2호 최승효 고택이다. 양림동에 다니러 올 때마다 늘 문이 완고하게 닫혀 있어서 아쉬웠던 곳이다. 우연찮게 지난 3일 'Re Birth 최승효 고택' 행사에 들렀다 깜짝 놀랐다. 오래된 한옥과 정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석 구석 흥미롭지 않은 공간이 없었다. 무엇보다 휴식, 느낌, 쉼 이런 느낌과 가장 어울리는 곳이었다.

이 고택은 1920년대 지어진 '양림동 최부잣집' 최상현씨의 집이다. 지난 1985년 광주 MBC 창립을 주도했던 고(故) 최승효 선생이 구입해 1999년 타계하기 전까지 살았고 오랫동안 방치됐었다.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중이던 최씨의 3남 인준(65)씨가 국내에 들어와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을 지난 15년간 혼자 힘으로 가꾸었다. 그는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의 예제자로 1995년 제 1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이기도 하다.

사진을 찍기 위해 다시 고택을 찾았다. 주변 풍경과 딱 어울리는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고택의 메인 공간인 자이당(自怡堂) 대청에 오른다. 보는 위치에 따라 완전 다른

풍경이다. 자이당의 방은 최인준씨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유명한 고서화 수집가였던 아버지가 모았던 작품과 공돌품들도 함께 전시돼 있다. 방에서 내다 보이는 집안 곳곳의 풍경은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다.

사람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잡초가 무성했던 공간은 멋진 정원으로 변신했다. 반지하 정제에는 아버지가 쓰던 유기며 그릇들을 놓아두었다. 고택 측면에는 조각보 뜰을 조성했다. 화산 채석장에서 가져온 알록달록 돌조각들을 일일이 부쳐 만든 공간이다.

뒤쪽으로 올라가면 최인준 갤러리가 보인다. 스승이었던 백남준 선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고 존 케이지의 음악이 흐르는 전시실에서는 그의 설치미술들을 만날 수 있다. 갤러리 2층에는 조만간 예술 관련 서적들을 만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 생각이다.

최승효 고택의 매력은 소박한 산책길이다. 구부러진 소나무가 지붕을 이루는 장독대길, 편백나무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편백나무길, 사직공원을 감싸고 있는 옹벽길 등이 인상적이다. 특히 광주 시내와 무등산을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는 무등산 전망 포인트가 압권이다.

고택의 문을 열면 좋겠다는 주변인들의 요구가 많았다. 일부 행사에 한 두번 오픈한 적은 있었지만 '완전 개방'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을 먹지 못했다. 좀 더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또 만만찮은

운영비와 프로그램 등도 고민이었다. "어렵사리 마음이 결정을 했는데 어제 공식 오픈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많은 이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행복해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는 하지만요(웃음) 15년 세월이 만들어놓은 공간이예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좋은 숲, 냇새, 나무, 꽃들과 사람, 문화가 공간으로 자리잡으면 좋겠습니다."

최씨는 인터뷰 내내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집안 곳곳은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넓은 대청은 클래식 음악회, 국악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열기에 안성맞춤이다. 갤러리 옆 티뮤 아트 스페이스, 조각보 뜰 등도 공연하기 좋다. 또 대청에서 영화 감상도 가능할 수 있도록 스크린도 마련해 두었다.

현재 운영 계획이 완벽하게 짜여진 건 아니다. 일단 10월 한 달간은 매일 문을 열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세세한 운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2일에는 전남대 음악학과 정현수 교수가 현대 음악 연주회를 갖는다.

시간을 넉넉히 잡고, 고택을 천천히 둘러 보면 좋다. 지나치듯 구경하면 의미가 없다. 최부자가 독립운동가를 숨겨줬다는 이층 다락도 둘러보고 대청에 올라 바깥 풍경을 내다 보자. 혹시 방문할 때 최인준씨를 만나면 집안 안내를 부탁해도 좋다. 아주 유쾌한 그는 고택을 찾아준 이들이 고맙고 감사해서 흔쾌히 동행이 되어준다.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



최상준씨의 작품이 전시된 자이당 방의 모습.



'자이당' 대청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

SAMSUNG 삼성전자 파트너 굿모닝 하이넷

속타는 에너지 비용 삼성이 책임집니다!!

에너지 절감의 혁명!!

등유대비 68% 절감
전기 54% 절감
도시가스 42% 절감

고정비용을 줄여라!!

시설원예, 병원, 모텔, 펜션, 어린이집, 목욕탕, 요양원 등

지역 특판점 및 영업사원 모집

삼성전자 히트 펌프보일러 1644-8983

나주목사교울시장 Naju Moksagooul Market

전라도 전통 깻갈김치

담그기 체험 참가자 모집

● 일시 : 2014. 10. 1 ~ 11.12 매주(수) 오후2시(10,29일 제외 총 6회)
● 장소 : 나주목사교울시장 광장
● 대상 : 매회 30명 이내(단체접수 가능) ● 체험비 : 3,000원
● 기념증정 : 직접 담그신 김치 반포기 증정
● 접수문의 : 나주목사교울시장 문화관광사업단 ☎ 061) 332-1574
※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blog.naver.com/najumarket) 참고

나주목사교울시장 상인회, 문화관광사업단, 중소기업청, 나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